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1 2025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25 / 1

시절 인연	02	부처님 생애 - 1
법정 스님 따라 하기	06	시 반 구절과 바꾼 목숨
법정 스님 편지	10	새해 복 많이 받고
법정 스님 향기 / 백형찬	12	법정 스님이 사랑한 음악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4	바산바연지주야신 婆珊婆演底主夜神 2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18	메아리 없는 독백
스님에게 전하는 이야기	20	소유의 가치를 알려주신 스님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1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5년 1월 1일 발행 / 통권 359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편집인 덕일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간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g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

부처님 생애

2008년 12월 16일 불교문화강좌 _ 법정 스님 특강 1

‘청법가’는 법문을 청하는 마음을 담아 부르는 찬불가이면서 아주 좋은 법문이기도 합니다. 사자가 모든 짐승을 제압하듯이 중생들의 번뇌를 제거해 준다는 뜻에서 부처님 설법을 사자후(獅子吼)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 이슬에 비유하여 감로법(甘露法)이라고 합니다. 저는 덕이 높지 않음에도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좌에 오르사, 사자후를 합소서’라는 청법가를 들을 때마다 낮 간지럽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부처님 생애’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가끔 절에 왜 다니느냐고 질문을 받을 텐데, 그런 경우 어떻게 대답하세요? 물론 저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뭣 하러 절에 가지? 내가 왜 불교문화강좌 수업에 가지? 이런 물음에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시장에 가건 절에 가건 혹은 교회에 가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지, 막연하게 남이 가니까 나도 따라서 간다는 식으로 가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성자(聖者)들은 삶이 따로 있고 사상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곧 그의 사상입니다. 사상은 훗날 제자나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일 뿐, 당사자는 몸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물의 전기를 배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꼭 종교적인 성자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

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시간이 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성자의 생애를 우리가 맹목적으로 배울 게 아니라, 타인의 생애를 살펴보기에 앞서 저마다 자기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가? 내가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왔는가? 내 자신답게, 아무개 엄마답게, 아무개 딸답게 그렇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전을 읽을 때도 금강경, 천수경, 원각경, 법화경 할 것 없이 맹목적으로 거기에 들어 있는 글에 팔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자기는 지금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전을 배우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29살에 출가합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 부인도 있고 아들도 한 명 있었지만, 집착과 타성의 집에서 훌훌 떨치고 나옵니다. 가출과 출가는 다릅니다. 출가는 자기 의지대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고, 가출은 모든 게 싫어서 단순히 집을 나오는 것입니다. 한 생각 불쑥 일으키면 어디서,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바빠집니다. 꼭 출가한 스님들뿐이 아니라, 일단 이 뒷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되면 괜히 마음이 바빠져 한시가 바빠집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 당시부터 어디서 중(衆) 모집한다는 광고 보고 출가한 사람 없습니다. 물론 전생부터 따지자면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저마다 한 생각 일으켜 살던 집을 버리고 뛰쳐

나오는데, 생각할수록 아주 오묘합니다. 모든 수도자에게는 처음 집을 나올 때 아주 절실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출가 정신 혹은 구도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집을 나올 때, 때 묻지 않는 아주 절실한 그 생각을 평생 지니고 기억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으라는 건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을 잊지 말고 늘 되새기라는 뜻입니다.

서산 스님의 법문집 선가귀감에 보면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편함과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고, 따듯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해서도 아니다. 생과 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이루려는 것이고, 끝없는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출가 정신입니다. 이런 각오, 이런 정신을 늘 지니고 있으면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나름대로 가풍이 있고,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고 받쳐주는 가정은 튼튼합니다. 특히 요즘은 전통적인 대가족 시대가 무너지고,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집안 전통이 사라집니다. 그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의 버팀목이 되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자문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핵가족 시대로 인해 이 소리에 흔들리고 저 소리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엄마들이 깨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그 집안이 풍비박산되지 않습니다. 집안의 중심은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개조되려면 정치적인 구호나 정당 정치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부터 하나하나 달라져야 합니다. 쓰레기를 줄이

고, 소비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것에 낭비하지 않고, 근검절약하면서 늘 바른 정신으로서 살려는 노력이 주부한테서 나와야 합니다.

초기 경전인 <숫타니파타>의 ‘출가경’에 부처님 자신이 출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 왜 출가했는지, 그가 무엇을 생각하기 때문에 출가를 선택했는지, 그의 출가에 대해 나는 이야기와 노라. 집에서 사는 삶은 비좁고 번거로우며 티끌이 쌓인다. 그러나 출가는 널찍한 들판이며 번거로움이 없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여기서 눈이 있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뜻합니다. 세속적인 것은 거리낌이 많고, 너무 번거롭기에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출가했다는 것입니다. 출가한 다음에는 몸으로 짓는 나쁜 짓을 멈추고, 말로 하는 악행도 버리고 아주 청정한 생활을 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출가, 재가를 가릴 것 없이 신구의身口意, 몸으로 하는 행위, 입으로 쏟아내는 말, 안으로 일어나는 복잡미묘한 생각. 이 세 가지 업을 막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고 교회를 다녀서 몸과 말과 생각, 삼업三業이 그 이전보다 훨씬 맑아지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몸과 말과 생각을 맑히면서, 비본질적인 자기에게서 벗어나 본질적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 이 글은 2008년 12월 16일 법정 스님이 길상사 불교문화강좌에서 하신 강의를 정리 하였습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으며, 3회(1월호~3월호)에 걸쳐 연재됩니다.

시 반 구절과 바꾼 목숨

한 수행자가 히말라야에서 홀로 고행하면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는 아직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기 전이었으므로 부처님의 이름도, 경전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그때 인드라는 그 수행자가 과연 부처가 될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나찰羅刹(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악독한 귀신)의 몸으로 변신해 히말라야로 내려왔다. 그리고 수행자가 사는 곳 근처에 서서 과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시의 앞 구절을 외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덧없으니
그것은 곧 나고 죽는 법이라네

이 시를 들은 수행자는 마음속으로 한없이 기쁨을 느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험상궂게 생긴 나찰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저처럼 추악하고 무서운 얼굴을 가진 존재가 어떻게 그런 시를 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불 속에서 연꽃이 피고 뜨거운 햇빛 속에서 찬물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일이다. 혹시나 저것이 전생에 부처님을 뵈고 그 시를 들었을까?’ 수행자는 나찰에게 가서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과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시의 앞 구절을 들었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그 여의주 보배의 반쪽을 얻었습니까? 그 시를 듣자 마치 망울진 연꽃 봉오리가 활짝 피듯이 내 마음이 열렸습니다.”

“나는 그런 것은 모르오. 여러 날 굶은 끝에 허기가 저서, 아마 헛소리를 했나 보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당신이 만일 그 시의 뒤 구절을 마저 일러 주신다면, 나는 평생을 두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물질의 보시는 사라질 때가 있지만, 법의 보시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혜는 있어도 자비심이 없구려.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지 남의 사정은 모르고 있소.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오.”

그러자 수행자가 나찰에게 물었다.

“당신은 대체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나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놀라지 마시오. 내가 먹는 것은 사람의 살덩이이고, 마시는 것은 사람의 따뜻한 피요. 그러나 그것을 구하지 못해 나는 지금 몹시 괴롭소.”

“그럼 내게 그 나머지 시를 들려주십시오. 그것을 다 듣고 내가 이 몸뚱이를 송두리째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덧없는 몸을 버려 영원한 몸과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당신을 믿겠소. 겨우 반쪽의 시를 듣기 위해 그 소중한 몸을 버리겠다니.”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질그릇을 주고 칠보로 된 그릇을 얻듯이, 나도 이 덧없는 몸을 버려 금강석과 같은 굳센 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시방삼세+方三世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것을 증명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똑똑히 들으시오. 나머지 반을 마저 말하겠소.”

마침내 나찰은 시의 후반부를 읊었다.

생사의 갈등이 사라지고 나면
모든 것이 열반의 기쁨이여라

수행자는 이 구절을 듣자 더욱 환희심이 솟았다. 시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음미한 뒤에 그 시를 후세에까지 전하기 위해 벼랑과 나무와 돌에 새겼다. 그리고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뛰어내리려 했다. 그때 나무의 신이 그에게 물었다.

“그 시에는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이 시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시를 들으려고 몸을 버리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세상의 인색한 사람들에게 내가 몸을 버리는 이 광경을 보여주고 싶다. 조그만 보시로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들에게 내가 반 구절의 시를 얻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싶구나.’

마침내 그는 몸을 날려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그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나찰은 곧 인드라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공중에서 그를 받아 땅에 내려놓았다. 이때 여러 천신들이 모여 그의 발에 절을 하면서 그토록 지극하게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구도의 정신과 서원을 찬탄했다.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14〉

*법정 스님 강론

이 이야기는 유명한 설산동자의 설화다. 물론 설산동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수행자 시절의 이름이다. 반 구절의 시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도 아낌없이 내던지는 그 구도의 정신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위법망구爲法忘軀, 즉 법을 위해 몸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과연 이런 위법망구의 정신이 있는가를 물을 때, 나는 몹시 부끄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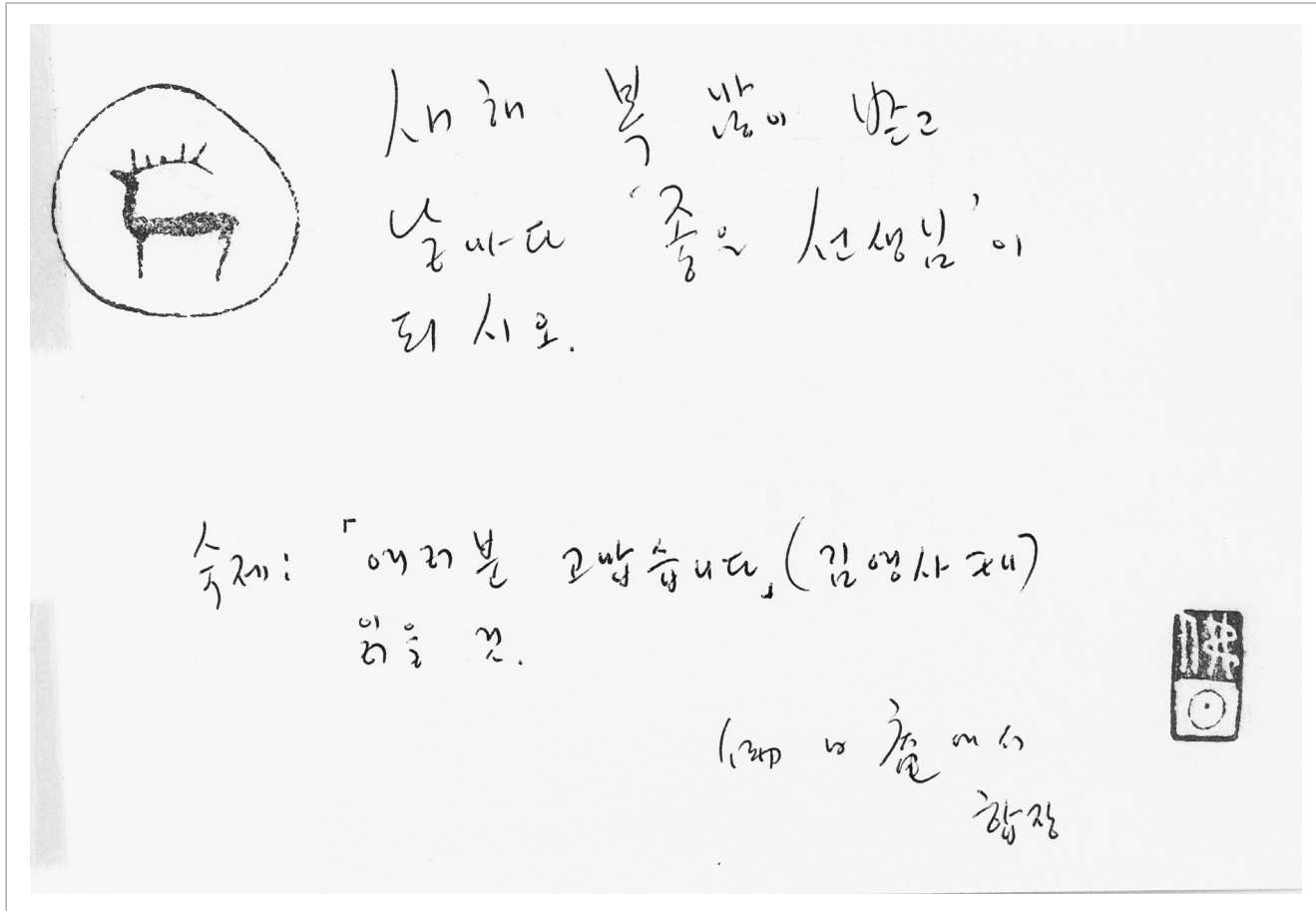
이 세상 모든 일은 덧없으니 諸行無常
그것은 곧 나고 죽는 법이라네 是生滅法
생사의 갈등이 사라지고 나면 生滅滅已
모든 것이 열반의 기쁨이여라 寂滅爲樂

이 시가 〈열반경〉 사구계이다. 나찰이 수행자에게 한 말 가운데 “당신은 지혜는 있어도 자비심이 없구려.”라고 한 대목에 마음이 간다. 깨달음을 구해 부처가 되려면 지혜만이 아니라 자비심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자비심이 곧 여래이기 때문이다.

법문 한마디를 듣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리는 지극한 구도 정신이 마침내 깨달음을 이룬다는 이 구도 설화 앞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한 권의 경전을 얼마나 소홀히 건성으로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소중한 가르침을 소홀히 하지 말 일이다.

3. 법정 스님 편지



새해 복 많이 받고

날마다 '좋은 선생님'이

되시오.

숙제: 「여러분 고맙습니다」(김영사 판) 읽을 것.

불일암에서

함장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1982년 1월 유영숙 보살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사랑한 음악

스님이 봉은사에 있을 때 음악을 즐겨들었습니다. 어느 여성이 소설가 최인호에게 말했습니다. “봉은사에 아주 매력적인 스님이 한 분 계세요. 절 방에 오디오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모차르트와 슈베르트의 음악을 듣고 <어린왕자> 이야기를 해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최인호는 그 말을 듣고 빈정거렸습니다. “스님이 무슨 모차르트야? 스님이 또 무슨 <어린왕자>야? 웃기고 있네. 세상을 버리고 출가한 사문 주제에.” 최인호는 자신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여성이 스님을 ‘매력적인’ 스님이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은 음악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두루 즐겼습니다. 기악, 성악, 교향악, 협주곡, 클래식, 종교 음악을 비롯해 동요와 가요까지도 즐겼습니다. 또한 스님은 자연에서 나는 물소리, 바람 소리, 새소리, 풀벌레 소리도 자연의 음악처럼 즐겼습니다. 스님의 청각은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음정, 박자, 리듬을 비롯해 악기 소리 하나하나까지 모두 정확히 들었습니다. 스님은 맑은 정신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음악을 즐겼습니다. 스님에게 음악은 여가가 아니라 영혼을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수행’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스님은 바흐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바흐 음악을 들으면 ‘장엄한 낙조’ 같은 것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스님의 서가에는 몇 권의 동화책이 꽂혀 있었는데, 그중에서 <어린 왕자>는 손때가 묻도

록 자주 펼쳐본 책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를 펼치면 바흐의 음악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늘에 얽은 구름이 떠다니는 초가를 아침에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를 들으면 그 플루트 노랫가락에 가을 냄새가 배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스님은 현악기를 즐겨 들었습니다. 현악기 중에서도 첼로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첼로 연주자로는 스페인 출생의 카살스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앨버트 피칸이 카살스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인 <나의 기쁨과 슬픔, 파블로 카살스>를 읽고는 그의 음악 세계에 깊이 빠져 들었습니다. 스님은 콘트라베이스도 즐겨 들었습니다. 특히 게리 카Gary Karr가 연주한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콘트라베이스 소리는 맑은 바람이 안에서 일어나 ‘영혼을 사위시켜 준다’라고 했습니다. 콘트라베이스의 굵은 저음은 ‘영혼의 깊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산중의 겨울나무 중에 가장 정다운 나무로 자작나무를 꼽았습니다. 자작나무는 매섭게 추운 지방 시베리아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자작나무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알몸으로 자신을 온통 드러내고 있어서 ‘믿음직한 친구’를 대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산중에 들어와서 손수 백 그루의 자작나무를 심었습니다. 제법 크게 자란 자작나무를 대하면 나무에서 ‘바로크 음악’이 은은히 울려 나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작나무 곁을 떠나기가 늘 아쉽다고 했습니다. 스님에게 자작나무는 비발디, 헨델, 바흐의 바로크 음악이었습니다.

스님 곁에는 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와 책과 음악’이었습니다. 마실 차가 있고, 읽을 책이 있고, 듣고 즐기는 음악이 있음에 늘 고마워했습니다. 스님은 이 세 가지 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면 살림살이는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은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바산바연지주야신 婆珊婆演底主夜神 2

“지혜의 눈이 없고 허황된 생각과 뒤바뀐 소견에 가려, 중생들이 덧없는 것을 영원하게 생각하고, 즐거움이 없는 것을 즐겁다 생각하고,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나’니 사람이니 중생이니 하는 고집과 오온五蘊,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의 법에 굳게 집착해 원인과 결과를 모르고 선악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중생을 살해하고 사견邪見을 가지며, 부모에게 불효하고 수행자를 공경하지 않으며,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지 못하고 못된 짓에 빠지고 그릇된 법에 머문다. 여래를 비방하고 바른 법륜을 깨뜨리며, 보살들을 헐뜯고 대승을 경멸해 보리심을 끊으며, 은혜를 입은 이에게 도리어 해를 가하고 신세지지 않은 이에게는 항상 원한을 품으며, 성현을 헐뜯고 못된 무리와 가까이 하며, 탐이나 절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오역죄五逆罪를 지어 마침내 삼악도에 떨어질 사람들에게, 나는 이와 같이 염원한다. ‘원컨대 내가 큰 지혜의 광명으로 중생들의 무명 암흑을 깨뜨리고 속히 위없는 보리심을 발하게 해지이다.’

발심한 뒤에는 보현의 법을 보여 열 가지 힘을 열어 주고, 여래 법왕의 경계를 보이고 부처님의 온갖 지혜의 성을 보이며, 부처님의 수행과 자재自在와 성취와 총지總持와 모든 부처님의 하나 같은 몸과 부처님들의 평등한 곳을 보여 그들을 편안히 머물게

한다.

중생 가운데 질병에 걸리거나 늙음에 시달리거나 가난에 쪼들리거나 재난을 만나거나 국법을 범해 형벌을 받을 때 믿고 의지할 데 없어 두려움에 떠는 이들을 내가 구제해 편안케 하고, 이와 같이 염원한다.

‘원컨대 내가 법으로써 중생들을 널리 거두어 모든 번뇌와 생로 병사와 근심 걱정에서 해탈케 하며, 선지식을 가까이하고 항상 법보시를 행하고 선업을 부지런히 지으며, 여래의 청정한 법신을 얻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지이다.’

또 중생들이 소견머리 없는 숲에 들어가 샅된 길에 머물며, 온갖 환경에 잘못된 분별을 내며, 착하지 못한 몸과 말과 생각의 업을 행하고 갖가지 잘못된 고행을 부질없이 지으며, 바른 깨달음이 아닌데 바른 깨달음이라 착각하며, 나쁜 친구에게 붙들려 못된 소견을 내고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을, 여러 방편으로 구호해 바른 견해에 들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염원한다.

‘내가 악도에 떨어질 중생들을 구원하듯이, 모든 중생을 널리 구원해 온갖 고통에서 해탈하고 바라밀을 출세간의 성도聖道에 머물러 일체지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며, 보현의 서원을 갖추어 일체지에 가까워지며, 보살행을 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모든 중생을 가르치게 해지이다.’”

이때 바산바연지 주야신은 이 해탈의 뜻을 다시 펴려고 부처님의 신기한 힘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살피고 선재동자에게 계승으로 말했다.

내 이 해탈문이 맑은 법의 광명을 내어
어리석은 어둠을 깨뜨리고 때를 기다려 말하노라

내가 옛날 끝없는 세월에 광대한 자비를 행해
여러 세간 두루 덮었으니 불자는 마땅히 닦고 배우라

고요한 대비大悲의 바다가 삼세의 부처님을 출현시켜
중생의 고통을 없애 주니 그대들 이 문으로 들어가라

세간의 즐거움도 내고 출세간의 즐거움도 내어
내 마음 기쁘게 하니 그대들 이 문으로 들어가라

유위有爲의 근심 버리고 성문聲聞의 과로도 멀리해
부처님의 힘을 맑게 닦으니 그대들 이 문으로 들어가라

내 눈이 심히 청정해 시방세계를 널리 보고
그 가운데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 앉으심도 본다

잘생긴 상호로 몸을 장엄하고 한량없는 대중이 에워쌌는데
날날 터럭 안에서 갖가지 광명을 발한다

또 여러 중생이 여기서 죽어 저기에 나고
다섯 길로 윤회해 늘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는다

내 귀가 심히 청정해 듣지 못하는 것 없어
모든 언어의 바다를 모두 듣고 기억한다

부처님들께서 법륜을 굴림에 그 음성 뛰어나 견줄 데 없고
여러 문자를 모두 다 기억한다

내 코가 심히 청정해 법에 구애가 없고
모든 것에 다 자재하니 그대들 이 문으로 들어가라

내 혀가 심히 넓고 커서 청정하고 말을 잘해

알맞게 미묘법 말하니 그대들 이 문으로 들어가라

내 몸이 심히 청정해 삼세가 다 진여와 평등하다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온갖 것을 모두 나타낸다

내 마음이 맑고 거리낌 없음이 허공에 삼라만상 있듯이
모든 여래를 널리 생각해도 또한 분별하지 않는다

한량없는 세계와 모든 마음과
근성과 욕락을 다 알지만 또한 분별하지 않는다

내 큰 신통으로 한량없는 세계를 진동하고
몸이 가지 못하는 데 없어 역센 무리를 조복한다

내 복이 심히 광대해 허공이 다하지 않듯이
모든 여래를 공양하고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

내 지혜 넓고 청정해 모든 법을 분명히 알고
중생의 의혹을 없애니 그대들 이 문으로 들어가라

나는 삼세의 부처님과 모든 법을 모두 알고
그 방편도 잘 알아 이 몸이 넓어 견줄 데 없다.

날날 티끌 속에서 삼세의 모든 세계를 보며
또한 그 부처님들을 뵈오니 이것은 보문普門의 힘이다

시방세계의 티끌 속에 노사나불盧舍那佛을 보고
보리수 아래 앉아 성도하고 설법함을 본다.

* 선재동자가 바산바연지주야신을 찾아 가르침을 듣는 간절한 구도 이야기는 3회로
나뉘어 계속 이어집니다.

메아리 없는 독백

친애하는 베토벤 씨!

한국의 한 젊은 사문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고 많은 인간산맥 중에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베토벤 씨! 이런 글을 쓰고 나면 저는 고독해지고 맙니다. 옆구리가 이렇게 텅 비어 버립니다. 엄마들이 사랑하는 아가의 종아리를 몇 차례 때려주고 난 뒤, 가슴에 닿는 아픔이 이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아가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한 손찌검 일지라도 말입니다.

베토벤 씨!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잡문이 오늘의 우리 교단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한 감각이 있는 세계라면 저 같은 풋내기가 입을 열기 이전에 벌써 우리들의 소원은 이루어졌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남이 들어 싫어할 박덕한 말들을 늘어놓는 것은 고발의식에서가 아니라 제대로의 어떤 사명감에서입니다.

이 어두운 계절 앞에서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는 누구의 입으로든 분명히 가려 놓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막힌 현실을 함께 걱정하는 가슴들이 그래도 더러는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그러한 가슴들에서 환한 꽃이 피어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슬픈 일들이 너무도 많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시정을 위해서 그런 것부터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친애하는 베토벤 씨!

지금 제게는 혼자서 높은 산정山頂에 올라 주위를 둘러 볼 때 오는 그러한 허허로움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지금 살아 있는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찾고 싶습니다. 영혼을 울리는 당신의 그 인간적인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의지와 신념의 바다에 잠기고 싶은 것입니다.

베토벤 씨! 당신의 멜로디를 들으면, 그 '고뇌를 넘어선 환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저는 제가 할 일이 무엇이라는 걸 절감합니다. 온통 저의 심장은 고동합니다.

“나는 인생을 몇 천 번이고 되풀이해서 살고 싶다... 나는 고요한 생활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은 아니다.”

앞이 저버린 숲에서는 탁목조啄木鳥의 나무 쪼는 소리가 빈골 짝을 울리고 있군요. 고독한 구도자 스피노자의 의지를 거듭 되새기면서 이 '메아리 없는 독백'을 멈추어야겠습니다.

'아무리 내일로 세계의 종말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베토벤 씨! 고뇌하던 우리 베토벤 씨!

- 1966년 1월 16일

7. 스님에게 전하는 이야기

소유의 가치를 알려주신 스님

올해부터 돈을 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로워진 마음만큼이나

가지고 싶은 것들도

참 많아진 요즘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늘 소유에 대한 깨달음과

가치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필요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축적하는 부와

정신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다짐하겠습니다.

* 길상사 진영각 방명록에 익명으로 남겨주신 귀한 글을 '월간 맑고 향기롭게'에 공유합니다.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 앙 모 임 (02-741-4696)

■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자연을 보존, 보호하는 일 등, 구체적인 실천행을 도모하여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으로 서울특별시 소관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기부금 코드 41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기부금 > 발급

후원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정확히 등록한 후원자님은 2025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기부 내역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자(후원자)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 2025년 1월 7일 전까지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이용하기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http://www.clean94.or.kr) > 나의 후원 > 중앙모임 로그인 >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인증 로그인

중앙모임으로 후원하신 분들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신청시 작성하신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 정보를 입력하여 인증받으면 후원 내역과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본인 인증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사무국 02)741-4696,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확인하여 자세한 안내 및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지역모임 후원자는 각 지부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 김장 나눔

12월 5일(목)에 맑고 향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를 비롯하여 봉사자 80여 명이 동참하여 4,000여 포기의 김장을 하여 24개 주민센터를 통해 460가구에 김장 10kg씩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인정과 마가렛 방과후교실에도 총 400kg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 김장을 할 때마다 날씨 걱정이 많은데, 올해는 다행히 포근한 날씨 덕분에 모든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김장 나눔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절임 배추와 양념장 하역을 도와주신 분들과 연말 김장 나눔에 심시일만 후원을 해주신 분, 먹거리를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의 정성이 담긴 김장 김치가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따뜻한 겨울나기 목도리 나눔

한 해 동안 뜨개질 봉사활동에 29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총 3,070개의 목도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봉사자들과 의논하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원각사 무료 급식소, 노숙자지원센터, 종로 쪽방촌, 반찬 나눔 대상자, 광주 모임 공양나눔센터, 경남모임 노인복지관에 골고루 전달하였습니다. 목도리 뜨개질 활동에 참여하신 봉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3일(금)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뜨개질 소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연말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구모임 (053-753-8883)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심리치료, 상담, 정서지원 운영: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사각지대(아동, 청소년, 홀로어르신) 반찬 지원 활동: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 경로 급식 및 웃음치료: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9시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청도 운문사 봉사활동: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8시30분 집결후 이동
- 저소득층 자활, 중독자 지원 / 보호시설종료(자립준비) 청소년·청년 지원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무소유 기행 / 아나바다 공유 사업 비정기 진행

● 난치병 환우 돕기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 대여

● 법정 스님 문화관 운영(5층)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경남모임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신정 합동 차례

- 일시: 1월 1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천수다라니 33독송 기도

- 일시: 1월 4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성도재일

- 일시 : 1월 7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보름기도

- 일시 : 1월 14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1월 17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일요법회 - 문광 스님

- 일시 : 1월 19일(일) 오전 11시
- 장소 : 설법전

관음재일

- 일시 : 1월 23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 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 기도

- 일시 : 1월 29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금강경 독송 1년 기도(학업 성취, 취업 성취, 시험 합격)

- 일시 : 1월 1일 ~ 12월 31일
- 시간 :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자비도량참법

- 일시 : 1월 31일(금) ~ 2월 6일(목)
- 시간 :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설법전

마가스님 열려라 참깨명상

'참 나를 깨우는 명상'

- 일시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 설법전
- 동참금 : 회당 1만원
- 접수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설 합동 차례

- 일 시 : 1월 29일(수) 오전 9시 50분
- 장 소 : 극락전 (접수 번호 1번~900번)
설법전 (접수 번호 901번부터)

정초기도

- 일 시 : 1월 31일(금) ~ 2월 6일(목) 오전 9시 50분
- 금강경 독송 정초칠일기도 : 오후 2시
- 장 소 : 극락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후원 나이스페이먼츠 시스템을 통해 후원자님의 신용카드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 방법을 신용카드 후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직접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할 때, 직접 본회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가입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각 지부를 선택하여 후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각 지역 모임 후원 계좌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